호남 현대사 이끈 광주일보 '정론직필 59년'

호남 언론의 상징, 광주일보가 59년을 맞았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민을 대변하는 동시에 시대의 화두를 되짚으며 호남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일보는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사회적 흐름인 다문화 가정 시대에 발맞춰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2세, 이주노동자 등을 다룬 시리즈를 4년여의 장기간동안 게재해 각 계의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30주년을 맞은 5·18민중항쟁을 철저히 고찰해 정론지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일보는 지역문화창달, 지역사회에의 봉사, 지역개발의 선도라는 역사적 소명 아래 100년을 향한 지역민의 대변지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광주일보는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다문화 사회를 집중 조명하며 3회에 걸친 시리즈를 연재해 한국신문상과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등 7차례의 수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순천제일대학에서 다문화가정과 한국인가정 어린이 24명으로 구성된 '짱뚱이와 두루미 합창단'이 공연을 시작하자 다문화가정 및 한국인 가정 부모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나명주기자 Naj@

부끄럽지 않은 59년의 발자취
100년 향한 지역민 대변지 다짐

시대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넘어 다문화 가정을 농어촌이 아닌 도시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 시대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광주일보는 국가적 흐름을 초기에 포착, 지난 2007년부터 다문화 관련 시리즈를 4년여 동안 심층 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취재는 물론 매년 외국에 특파원을 보내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다문화 문제를 4년여 동안 심층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전국 언론 가운데 유일무이하다.

본보의 다문화 시리즈는 '온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 찾기' 등이다.

첫 해에는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한 연재물을 1년간 진행했으며,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인이자 지역민이 된 다문화가정 2세들을 진정한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광주일보는 제 10·1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08년 12월), 제13회 일경언론상, 2011년 한국신문상, 2010년 광주·전남기자협회 대상 등 7개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광주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다

5·18민중항쟁은 영원한 광주의 멍에이자 명예이며, 역사적 아픔이자 긍지이다. 민주도시로서 광주를 세계사 속에 자리매김해야 하는 과제는 지역언론의 태두인 광주일보의 소명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정론지로서 선봉에 섰던 광주일보는 80년 5·18 당시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인 진실보도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10일 동안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등 언론으로서 가장 큰 억압을 받기도 했지만 같은 해 6월 4일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은 '민주시민의 긍지…무등산은 알고 있다', '광주는 영원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주시민의 피맺힌 절규를 대변했다.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광주일보로 통폐합된 이후 1989년 '5·18 - 그 후 9년'이란 5·18 첫 진상보도를 통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5·18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5월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기획시리즈를 게재했다.

특히 30주년을 맞은 2010년에는 5·18민중항쟁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그날의 정신을 일상화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5·18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올바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재물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5·18민주화운동 30주년 특집)을 그해 1월부터 5개월 간 진행했다. 5·18의 세계화를 위한 각 인사들의 제언과 아직도 화해·용서를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심층보도에 주력했다.

시리즈가 게재되는 동안 5·18 당사자와 유족, 시민사회단체 등 각 계의 격려 및 문의 전화와 취재 기자에 대한 응원이 쇄도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는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제정한 '5·18 언론상'의 첫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정통지, 호남 문화를 이끌다

광주일보의 반세기가 넘는 역사는 정직한 언론의 역할 외에도 수준 높은 문화도시 창조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했다.

2010년을 기점으로 광주일보는 '광주·전남 대해부'를 연재하며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모색에 온 힘을 기울였다. 특히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시도는 괄목할 만 하다. 올해에는 연초부터 연중 특별기획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를 통해 광주가 명실상부한 세계 문화중심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향, 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역할을 창간 이래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 시절 지역민들과 함께 광주학생회관 건립 캠페인, 어린이 교통문화운동, 무등산 가꾸기 사업, 마을문고 도서 보내기 운동, 남도학숙 캠페인, 재소련 한글학숙설립 캠페인, '북녘 동포에 경운기 보내기', 상무대 반환운동, 5·18 묘지 민주나무 헌수 운동 등을 전개해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호남의 대표 예술축제로 올해 56회를 맞는 호남예술제는 광주일보의 대표문화행사로, 지난 56년부터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치러지며 50만명에 이르는 예술인을 키워냈다.

민족 정신을 되새기고 봄의 출발을 알리는 3·1절 마라톤은 역사를 넘어 명실상부한 호남의 일등 마라톤 대회다. 선동렬과 이종범 등 불세출의 야구스타들을 배출한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또한 빼놓기 어렵다.

70년 창설된 전남도배 직장대항바둑대회와 90년 시작된 광일배 바둑대회, 광일보훈대상, 분야별 공헌자에게 주는 무등문화상은 지역을 선도하는 언론으로서 지역문화 육성에 이바지하는 큰 뒷받침이었다.

호남 민중과 함께 미래를 노래하다

반세기가 넘도록 호남인과 함께한 광주일보는 이제 60년 성상을 앞두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한 궤적을 그리며 호남의 대표적 일간지로 위상을 확고히 한 광주일보의 역사는 영욕의 세월 속 '예봉의 기치'였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는 민족 상잔의 전쟁 와중인 1952년 2월 10일 태어났다. 또한 다른 뿌리이기도 한 전남매일신문은 4·19 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탄생했다. 이들 두 신문은 1980년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창간됐다.

1980년 우리 사회를 학살과 공포로 몰아붙였던 신군부의 강제적·자의적 언론 정책에 의해 전통의 지방신문이 새로운 신문으로 통합된 것이다. 광주일보가 창간일을 4월 20일로 잡은 것은 전신인 전남일보의 법인설립 등기일이 4월 20일이기 때문이다.

창간호부터 파격적이었다. 휴전회담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시작된 전남일보는 지방신문으로서는 유례없이 이승만 독재를 통렬히 비판하며, 날카로운 필봉을 내세웠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내세우기 위한 일이라면 항상 선봉에 섰다.

60년 4·19 혁명 당시 교문을 박차고 나선 고교생들의 의거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4·19 광주 희생자 조의금 및 위문금 모금'을 주도했다. 더욱이 4·19 당시 광주 시위의 발포 책임자 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암흑기인 유신시대에도 정론직필은 시들지 않았다. 74년 10월 25일 긴급조치 1호의 정국 속에서도 전남일보 기자 41명은 언론자유 실천을 결의하고 임무를 다하려 했다.

1980년 5월 당시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은 군화 발에 짓이겨 광주의 참극을 알리지 못했으며, 진실보도의 의무를 저버린 자책감과 반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비리 척결과 민주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2년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짜고 입찰 프로그램을 조작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보도로 해당 공무원 구속과 입찰 프로그램 전면 교체라는 성과를 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또 같은 해 전남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자녀를 특채하고, 관용 여권을 불법 사용한 사실을 고발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등 언론의 행정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성회'에 참석한 대학생과 시민 등 1000여명이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돌며 80년 5월 당시의 횃불시위를 재연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같은 해 1월부터 5·18 30주년을 맞아 16회에 걸쳐 연재한 심층기획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로 지난해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첫 제정한 '5·18 언론상'을 수상했다. /김진수기자 Jeans@

■ 독자위원회가 본 광주일보

"시민의 마음 잘 아는 신문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2005년부터 독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보도, 질 높은 신문제작을 위해 언론 및 법조, 시민·학부모단체 등 각계 최고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독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독자위원회는 1년 간 6차례의 회의를 갖고, 다양한 시선으로 광주일보의 발전을 논하고 있다.

올해 3월 출범한 제5기 독자위원회 역시 10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뜻깊은 제언과 가감없는 비판으로 광주일보의 지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노력중이다. 여느 독자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광주일보를 들여다 보는 독자위원들은 광주일보 창사 59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평가와 함께 광주일보의 발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5기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갑 조선대 의대 교수는 "59년간 호남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일궈 온 광주일보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며 "다양한 계층·영역의 여론 주도층 네트워크를 꾸려 이들이 오피니언란을 통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선숙 변호사는 "그동안 광주일보가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 언론의 사명을 잘 지켜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정론지로써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훈 (사)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은 "광주일보는 지역사회를 구석구석 살피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뤄서 지역사회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데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며 "광주·전남을 행복하게 할 창조적인 발상과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독자위원회 총무를 맡은 이묘숙 주부는 "근대 호남사의 모든 것을 목격한 광주일보는 광주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신문으로서 앞으로 기대는 물론, 계속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기를 바란다"며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 발굴에 더욱 신경썼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률기자 exian@

2011년 제5기 광주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광주일보 지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가진 뒤, 본보에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